

# 도,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 성료

### 도내 중기 CEO 400여 명 참여... 변화 대응·혁신 전략 모색

### 김광호 원장 초청 강연... 실천형 경영 인사이드로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북 CEO 지식향연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키우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소통형 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주상공회의소, 메인비즈 전북연합회, 전

북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해 지역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강연은 콤팩마케팅연구원 김광호 원장이 '변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원장은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2회 전북 CEO 지식향연'이 열린 가운데, 김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최고 강사로 선정된 바 있는 명강사로, 기업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실용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리더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에 리더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은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의 추경 기조에 맞춰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연계해 전북의 위상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CEO 지식향연은 2023년 첫 개최 이후 도내 대표 지식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4년에는 군산, 익산, 완주 등에서 4회를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호응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도내 기업인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2분기 혁신 주인공 선정

###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주역, 이창원 센터장 전북인재개발원의 키다리 아저씨, 소운수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차량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운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 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운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 공사 기간을 예상보다 1개월 이상 단축시켜 교육 일정



운영에도 차질 없이 연결했다. 또한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안전관리 지침'을 전북 인재개발원 최초로 수립하며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섰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릴 만큼 실무 조연과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 내 소통과 유대 강화를 이끌어낸 인물로 주목 받고 있다. 선정된 혁신 주인공에게는 상장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케리커처가 수여된다. /이만호 기자

## 도내 주요 해수욕장 본격 개장...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세요'

### 4일 부안 시작으로 군산 등 순차 개장... 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씬머페스티벌·비치캡 등 해변축제 풍성... 8월 18일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8곳이 오는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18일까지 총 46일간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피서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인력 배치, 긴급 대응체계 마련 등 물놀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총 16억6,000만원을 투입해 감시탑 추가 설치, 인명구조선, 구명조끼, 인명구조함 등 수상안전장비를

확충했다. 이와 함께 총 15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6월 중에는 군산해수청과 시군 등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완료했다. 개장 기간 중에는 시군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시군-해양경찰서-소방서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한 개장 전후와 운영 중에도 수질 검사, 토양검사, 해파리 예찰 등 종합

적인 환경안전조치도 병행된다.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부안군(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5곳이 7월 4일 △군산 선유도 1곳이 7월 9일 △고창 동호·구시포 2곳이 7월 10일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고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군산·부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변산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도는 안전 외에도 피서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무상지원과 여름 축제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창, 군산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 구명조끼 등 피서용품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변산해수욕장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와 함께 △7월 26일 군산 선유도에서 '썸머페스티벌' △8월 2일 부안 변산에서 '비스 변산 산밭대회' △7~8월간 운영되는 '변산 선셋 비치캡' 등 해변과 어우러진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무더운 여름 전북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피서를 즐기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

###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 이하 식량과학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오는 7월 1일 원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식량과학원의 연구 인프라 견학 및 식량작물 전시포장 관람, 김진숙 과장(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 재과)의 연구 현황 발표, 진해수 대표(조인앤조인)의 비건·대체식품 산업 동향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기업들은 정책 건의와 협력 모델 제안을 통해 산·관·연 간 실질적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공공보건의료 리더가 한자리에... '공감스쿨' 첫 운영

###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0여명 참가... 전문가 강연·행정 경험 공유로 의료리더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감(共感)스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공감스쿨은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경재 전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치와 이해

를 주제로 공공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건강 형평성 확보'의 시대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현아 THE 성장과나눔 대표 표는 개인의 업무 성향 기반의 조직 소문법을 중심으로 '보건 현장의 효과

적 소통 전략'을 공유해 공감대를 이끌었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정은 "공공보건의료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의 범주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이자 보건복지의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과 소통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실현 가능성 모색

### 도의회 기본소득제도 연구회 전남 신안군 방문 벤치마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전북형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회는 이날 신안군청을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군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배경, 재원 마련 구조, 실제 지급 현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임대료와 주민 자본 참여 수익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에 주목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했다. 이어 방문한 안좌 솔라시티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수익 사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했다. 연구회는 발전소 수익이 마을단위 소득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되는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북 지역에 유사 모델을 적용할 경우의 정책적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검토

연구회의 선진지 벤치마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27일에는 익산 상당포구마을을 방문해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연공' 운영 방식과 공동체 기반 소득보장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상당포구마을은 마을이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시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군산시를 방문한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규진)와 뜻깊은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의 지역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황규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5명과 직원 5명, 총 10명의 방문단이 군산시를 찾았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과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군산시 관광 조성 및 활성화와 정책을 비롯하여 폭넓은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지방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27일까지 군산 주요 관광명소인 새만금방조제, 은파관광지, 경암동 철길마을 등을 시찰한다. /군산=김현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이름 함께 바로잡아요'

### SNS 이벤트... 내달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명칭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정비 온라인 이벤트'를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도내 일부 공공시설물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전라북도'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도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도민은 물론 전북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전북도 내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에서 '전라북도'로 표기된 안내판, 간판 등을 촬영한 뒤, 위치 정보와 함께 도 공식 SNS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특히 가장 많은 장소를 찾아 제보한 30명에게는 4만 원 상당 모바일 쿠폰이 제공되며, 일반 참여자 5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이 지급된다. /이만호 기자

## '규제 혁신, 도민 체감'

### 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장수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올해 처음 열린 전북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26일 전주 왕의지빌에서 도내 각 시군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9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상에 수상한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례를 발표했다. 장수군 산서면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약사법에 의거 진료·처방을 하는 보건지소 1개소와 조제를 담당하는 약국 1개소가 1km 이내 개설되어 있는 의약분업 지역이다. 그러나 약국 운영자의 고령에 따른 거동불편 등 건강질환으로 정상적 약국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입실근 우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과제안으로 하여금 보건지소에서의 진료·처방과 함께 약제소가 가능해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고,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로 지역 간 건강 격차가 해소됐다. 최우수상은 '새로막 수확시기에 야간 조업 허용으로 상시(24시간) 작업 가능'을 발표한 부안군,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취약지역 공백 해소'를 발표한 정읍시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군산시의 '소아의료 공백 해소,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답이다', 남원시의 '10년 도심 흉물 H론도 새로운 주인 찾다', 완주군의 '주민들의 20여년 악취 양돈 문제 해결의 물꼬 트다'가 수상했다. /이만호 기자